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하원의 감세안 가결 추진 공화당 내 일부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
 - 연준 주요 인사, 정부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 초래.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10bp 인하. 경기 활성화 등이 목적
 - 일본, 對美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폐지가 중요. 장기물 국채 입찰은 저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재정건전성 관련 우려,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4%], 달러화 약세[-0.4%],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기술주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Vodafone 등 일부 기업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경제 불확실성 언급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90.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3.7원, 0.09% 상승). 한국 CDS 약보합

		5/20일	5/19일	전일대비			5/20일	5/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40.5	5,963.6	-0.39%	국채 금리 10y	미국	4.49%	4.45%	+4bp
	유럽	554.02	549.98	+0.73%		독일	2.61%	2.59%	+2bp
	중국	3,380.5	3,367.6	+0.38%		영국	4.70%	4.66%	+4bp
	일본	37,529	37,499	+0.08%	CDS 5y	한국	31bp	31bp	-0bp
	한국	2,601.8	2,603.4	-0.06%		중국	52bp	52bp	-0bp
환율	달러지수	100.01	100.43	-0.42%	위험 지표	EMBI+	-	381	-
	유로화	1.1283	1.1240	+0.38%		VIX	18.09	18.14	-0.28%
	엔화	144.51	144.86	+0.24%		WTI유	62.56	62.69	-0.21%
	위안화	7.2170	7.2138	-0.04%	원자재	구리	462.0	463.4	-0.30%
	원화	1,392.4	1,397.8	+0.39%		금	3,290.1	3,229.6	+1.8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하원의 감세안 가결 추진. 공화당 내 일부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

-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은 21일 '감세안(one big, beautiful bill)'의 표결을 추진할 방침.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20일에는 공화당 회의 연설에도 나설 계획. 이번 법안에는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 조치 연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
-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최종 승인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 특히 연방 지출을 줄이기 원하는 일부 강경파,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삭감을 반대하는 의원, 주·지방세 공제 상한을 원하는 의원들로 갈등이 첨예
- 특히 의회에서 이번 감세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동안 국가부채가 3조~5조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재정 건전성 관련 불안이 높은 상황. 아울러 Moody's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 또한 관련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
- 한편, 주요 정치 매체들은 원안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내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역시 26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정부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 초래.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

-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관세가 경제 활동 및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물가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 아울러 지금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도 관세의 영향에 따라 3개의 경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언
- 한편 백악관의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일축. 특히 경제에서 수입의 비중이 14%에 불과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

■ 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마련. 5월 유로존 소비자신뢰는 전월비 소폭 개선

-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하기로 결정. 구체적으로 EU는 기존의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함대’ 189척의 유조선과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45개 기업 및 개인이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
- 한편 유로존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5.5를 기록, 전월(-16.6) 대비 소폭 개선. 다만 시장에서는 역사적 기준에서 소비자신뢰지수는 부진하다고 평가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 필요. 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분쉬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해야 하며, 연말에 수신금리가 2%(현행 2.25%)를 하회할 수도 있다고 언급. 반면 슈나벨 이사는 역내 디스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무역전쟁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기에 완화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10bp 인하. 경기 활성화 등이 목적

- 1년 및 5년 LPR 금리를 모두 0.1% 인하(각각 3.1%→3.0%, 3.6%→3.5%)하기로 결정. LPR은 '1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당국은 이번 조치로 대출 및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MUFG). 한편 시중의 대형은행들 역시 1·2년 및 3·5년의 예금금리를 각각 0.15%p, 0.25%p 인하한다고 발표

■ 일본, 對美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폐지가 중요. 장기물 국채 입찰은 저조

-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무역협상 대표는 미국에 대한 관세 철폐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 또한 자국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
- 한편 이날 있었던 2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은 2.5로 13년 만에 최저 기록. 낙찰금리 역시 1999년 이후 최고인 2.54%를 기록. 이에 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인 3.1%까지 상승하는 등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2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 및 ECB 권도스 부총재 발언
- 영국 4월 소비자물가 및 소매판매, 일본 4월 수출입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감세안, 재정적자 확대 및 인플레이션 우려 초래하여 금융시장 불안 가중 - 블룸버그

(House Budget Bill Creates Awkward Moment for Markets)

-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세 및 일자리 창출법안 연장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지지하도록 촉구.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부채가 3.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정부양책은 통상적으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속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높이기 때문. 이에 최근 연내 금리인하 횟수 전망도 축소(4회→2회). 또한 국채금리 상승, 실업률 상승 및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12월 내 기준, 20%→40%) 등을 고려할 경우 또 한 번의 주가 급락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미국 달러화 약세, 고평가 국면·재정 문제 등으로 지속될 전망 - Reuters

(Dollar set for more weakness as 'Brand USA' falls further out of favor)

- 장기간 상승했던 달러화는 무역전쟁, 정부부채, 예외주의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약세.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Moody's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차 매도 증가에 직면.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달러화 매력 감소는 이어질 전망. 첫째, 달러화 지수(20일 현재 100.0)는 최근 하락에도 20년 평균(90.1)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 둘째, 대규모 감세안으로 장기적 재정 위험 상존. 셋째, 해외 투자자들의 수년간 대규모 미국 주식 및 국채 보유로 전 세계적 매도 우려 가중(BNP). 넷째, 미국 자산 과매수 해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 다섯째, 수출업체와 기관투자자의 달러화 헤지 증가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미국의 관세 완화, 경기침체 위험은 감소했지만 불확실성 지속 - Financial Times

(Will Trump's tariff climbdown save the US from recession?)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로 경기침체 위험이 다소 감소하고 주가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과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지속. 실효관세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다수 경제학자들은 4월 소비자물가의 상승세 둔화에도 물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또한 90일 관세 유예 이후의 불확실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최근 Moody's는 해당 정책이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 아울러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2.5%)의 절반 수준인 1.1%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축소 기간, 채권시장 정상화 위해 늘어날 전망 - 블룸버그**

(BOJ Can Likely Keep Cutting Bond Buys as Market Views Diverge)

- 일본은행은 장기간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발행 국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 하지만 물가와 금융 불균형 우려로 작년 7월 금리인상과 함께 채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26년 3월까지 국채 매입 규모 축소(월 4000억엔)를 결정
- 한편 최근 일본은행의 시장 설문조사에서 채권매입 축소 속도와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 이러한 불확실성 등으로 일본 국채 시장에서 수요가 부진하며, 이에 주요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 흐름 지속
- 다만 기존의 정책이 진행 중이고, 설문조사에서 구체적 방법은 달라도 축소를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은행이 매입 축소 규모는 유지하되 기간을 '28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의회, 재정적자 악화 가능성으로 트럼프 감세안 부결시킬 필요 - The Economist**

(Congress should vote down Donald Trump's reckless tax cuts)

■ **마국의 재정건전성,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자 우려 가중 - WSJ**

(America's Fiscal Situation Threatens the Good Mood on Wall Street)

■ **Moody's의 경고, 주가는 반등했지만 재정에 관한 문제 제기는 유효 - 블룸버그**

(Markets snap back, but Moody's was on to something)

■ **마국의 은행 자본규제 완화 추진, 국채시장 유동성 회복에는 역부족 - Financial Times**

(Treasury jitters and banking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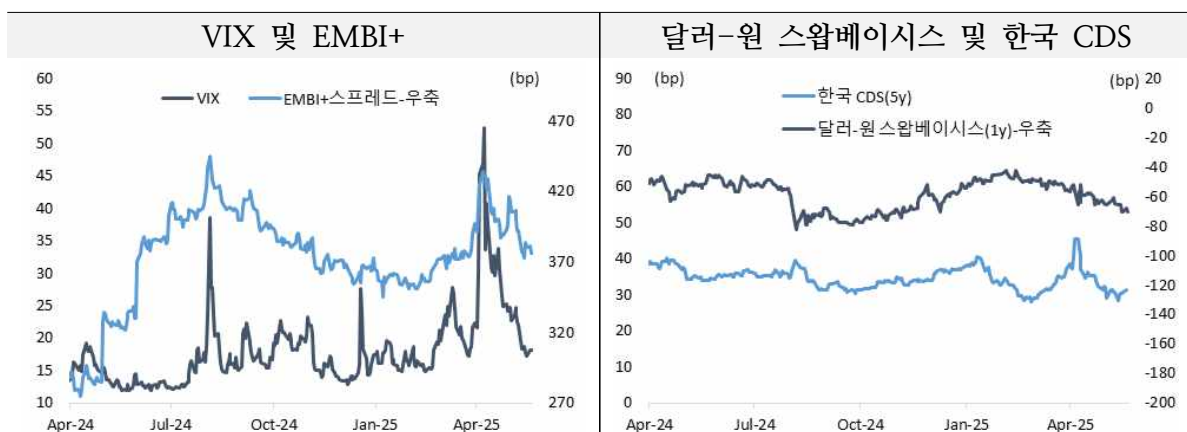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